

전남, 대전과 무승부 광주는 포항에 '무릎'

광주상무가 12경기 무승에서 빠져나온 포항 스틸러스의 '철인' 김기동에게 벼락골을 내줘 0-1로 패했다. 광주상무는 지난 19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삼성 하우젠 K-리그 2007 경기에서 경기 시작 40초만에 김기동에게 골을 내준 후 만회 골을 뽑지 못해 패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이날 대전시티즌과 원정 경기에서 전남 6분 정성훈에게 골을 내줬으나 후반 7분 김태수가 동점골을 성공시켜 1-1로 비겼다.

20일 경기에서 부산과 서울은 득점없이 0-0으로 비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 19일 밤 영국 런던 뉴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06-2007 잉글랜드 FA컵축구 결승에서 승리한 첼시 선수들이 우승컵을 들며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첼시, 英 FA컵 정상 탈환

드로그바 연장 후반 결승골... 맨유 꺾고 7년만에 우승

'종가 축구의 성지' 뉴 웨블리의 새 주인은 첼시였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위 첼시는 19일 밤(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뉴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06-2007 잉글랜드 FA컵축구 결승에서 연장 혈투 끝에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를 1-0으로 제압, 대망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디디에 드로그바는 연장 후반 11분 찬금같은 결승골로 이번 시즌 잉글랜드 축구의 대미를 장식했다.

칼럼잡 우승팀 첼시는 시즌 2관왕에 오르며 2000년 옛 웨블리 구장에서 우승한 이후 7년 만에 FA컵 정상을 탈환했다. 126회 결승에서 통산 4번째 FA컵을 안고 상급 100만파운드를 가져간 첼시는 올드와 뉴 웨블리의 마지막과 처음에 우승한 팀으로 역사에 남았다.

조제 무리뉴(포르투갈) 첼시 감독은 6번째 외국인 우승 사령탑으로 이름을 올렸다. 통산 12번째 우승컵과 시즌 2관왕을 노린 맨유는 종료 4분을 남기고 눈물을 떨쳤다. 부상으로 함께 하지 못한 박지성도 세계 최

고 전통의 FA컵 우승팀 소속 선수라는 명예를 놓쳤다. 결승골의 주인공은 아프리카(코트디부아르) 출신 최초의 리그 득점왕 드로그바. 드로그바는 연장 후반 11분 존 오비 미켈이 밀어준 볼을 펠퍼드에게 연결했고 다시 펠퍼드가 넘겨준 2대1 패스를 쫓아 문전으로 치고 들어갔다. 맨유 수문장 에드윈 판데르사르가 뛰어나왔지만 절정의 감각을 자랑한 드로그바는 발끝으로 볼을 쫓아 116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맨유의 골문을 열어젖혔다. 1950년 FA컵 이후 무려 57년 만에 첼시가 맨유를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서재응 시즌 4패

서재응(30·탐파베이 데블레이스)이 올 시즌 첫 연승 도전에 실패했다. 서재응은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플로리다 말린스와 인타리고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 5¼이닝 동안 삼진 2개를 뽑아냈으나 홈런 3개 등 8개의 안타로 7실점했다. 팀이 1-6으로 뒤진 6회 1사 2루에서 개리 글로버로 교체된 서재응은 내보낸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실점이 7점으로 늘어났다. 14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전 7이닝 6탈삼진 무실점 패투로 시즌 2승을 수확했던 서재응은 시즌 4패째를 안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태권도와 건강

현대 젊은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체력 유지와 의모의 형성 그리고 스트레스의 극복이다.

스트레스 해소, 체형 보정 탁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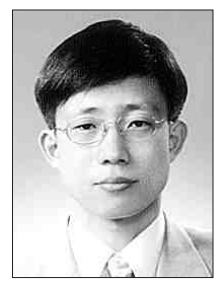
현대 젊은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체력 유지와 의모의 형성 그리고 스트레스의 극복이다. 스포츠 의학의 전문가로서 진료실에 앉아 실제 전문적인 태권도 선수들을 대하다보면 너무나 곱상한 얼굴과 예의바른 태도에 놀라곤 한다. 또한 한결 같이 비만하지 않고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 부러울 때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운동

칙을 익히게 된다. 도장에서 수양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겪었던 스트레스의 조절 능력도 가지게 된다. 중년 이후에도 태권도는 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특별히 해낸다. 중년 질환 중 가장 흔하면서 심한 고통을 주는 질병은 관절염과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다. 이는 특히 근육의 균형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넘어질 때 더욱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며 뼈가 부러지기도 쉽다.

심폐기능·체지방 감소 효과 높아 하지 근력 강화...몸매 균형 유지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다. 유럽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하체를 많이 사용하는 태권도는 하지의 근력이 강화되고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지게 된다. 특히 여성 유단자는 관절의 유연성이 크다고 한다. 실제 태권도 유단자들은 호리호리한 체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많은 국내의 연구에서 태권도 수련으로 심폐기능과 체지방 감소 효과가 높아지는 현상도 밝혀졌다.

이 경우 운동 요법으로 약해진 뼈를 강하게 자극해 주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흔히 가벼운 체조는 노인의 관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이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태권도는 어떠한가? 이 운동은 노인을 위해서는 부적절한 만큼 과격한 운동으로 흔히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중년 이후 건강을 위하여 동양 무술 즉 태권도가 좋은 운동임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근육의 균형과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필〉
▲조선대 의과대학 졸업
▲조선대 의대 정형외과 교수
▲대한관절경화학회 학술위원
▲대한 건주관절학회 우수 논문 상 수상
▲미국 메이요 클리닉 선정 관절 전문위원

“다음 목표는 올림픽 정상이죠”

세계태권도선수권 첫 금...조선대 정진희



정진희(21·조선대학교)가 한국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물했다. 정진희는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 창광 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여자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첫날 여자 밴텀급 결승에서 우승,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시상식 후 대표팀 관계자와 소속 학교 응원단, 가족들과 연방 기념촬영을 하는 정진희는 “운동을 시작한 뒤

처분 제일 큰 경기였는데 우승을 차지해 너무 기쁘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진희는 이어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따낸 금메달이라 더욱 기쁘다”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정진희는 지난해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인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여자 밴텀급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이번 대회에서도 8강까지 3경기 연속

점수차(7점) 승리를 거두는 등 시즌 자신감 넘치고 쾌거 있는 플레이로 정상까지 올랐다. 원래 플라이급에서 뛰던 정진희는 올린 정진희에 대해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과외 등 기량은 물론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선수”라고 말했다. 앞발 상단 공격을 자신의 주특기로 꼽은 정진희는 “올림픽 무대에 대비해 받아차기 등 공격의 정확성을 좀 더 보완해 나가겠다.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2007년 9급국가직/ 서울시/ 경기도/ 광주/전남시험합격! = 함께가요 한빛

7급공무원

★ 공무원 이론반 (2개월 완성)
★ 서울시 문제풀이 (1개월 완성)
★ 농업직 이론반 (2개월 완성)

첫진도 개강 6월 1일
마감임박! 예약 필수!

학원들의 경쟁체 = 7/9급 다이아몬드팀 A,B,C반

1공무원학원의 동브랜드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복구청약 234-0234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매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자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개입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특강 개설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육비 : 무료(마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 롯데백화점 앞 제일B/D 3층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수)

○신기한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등학년 태권도도장, 각·예능학원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현악사, 동문회, 교회행사, 야유회
○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제1회 국가공인자격증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취업 가능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 부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교통사고조사 전문가를 말한다. WTO가 일국 중 교통사고의 사망률이 각각 1.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정부는 당사자간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진교통사고조사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경찰관의 전담사항이었으나, 이면에 특별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외국처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조사하고, 조사 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공인력을 부여하였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꿔 버리거나 사고현장에 도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시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가는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되며 신규 고용증가에 대해 법적공인력 부여, 조사자료 증거 채택,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취업가능, 학력·경력 무관 평균 60점 이상 합격

업체와 당국의 관심은 매우 크다.(참고:사고발생 약21만건, 사상자 약34만명, 이의신청분쟁 매년 수천건씩 증가, 이상 2005년 경찰청 발표)

시험과목으로는 교통관련법규 등 4과목 객관식과 실무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학력·경력 무관하다. 특히, 일반직점에 마땅한 수험교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응시자를 위한 교육원의 안내자료와 특별교육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국가공인 제1회라는 시험특성까지 감안하면 시험 첫해인 올해 유래 없이 많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탄생될 전망이다.

상담문의/(062)526-5115
자료제공:한국교통사고감정교육원